



## 본국과 밀접한 협력관계 유지해온

# 在日 한국과학기술자협회

### 65년부터 연수생교류... 89년까지 9천여명

## 日本 편 <下>

### 3. 과학기술협력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입장에서 모국과의 과학기술관련 협력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모국과 일본과의 과학기술협력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1950년대말경부터 전후(戰後)의 부흥을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AID자금이 주로 유학생 및 기술연수로 파견되어 시작되었으나 1960년대 전후부터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실제 연수는 일본에서 하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후 관계기관과 절충을 거듭하여 1963년도 예산부터 민간베이스로서 통산성산하의 「해외기술자연수협회」를 통해 15명의 기술연수생이 정식으로 일본에서의 기술연수를 실시하였다. 그후 콜롬보플랜에 한국이 가입하고서도 대일국교가 없었으므로 연수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을 1961년말에 임의단체로 설립된 「아시아기술협력회」가 알선하여 1965년도 예산으로 1966년부터 연수생 10명이 도입하여 현재는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그 일을 맡고 있다.

이들 연수생의 도입은 1989년까지 자비를 포함하여 약 9천명을 넘었다.

아무튼 1983년 모국으로부터 강력한

요청을 받아 재일한국과학기술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모여 같은 해 10월에 오늘의 재일과협이 설립된 것이지만 재일동포와 유학생이 다같이 모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운용해오고 있다. 단지 설립 그 자체가 과학기술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관계로 재일민단이 재일과협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한 면이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일과협이 설립된 후부터 회원들의 일본 및 모국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1945년 이후 1982년까지 귀국한 자로서 이공계대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를 포함해서 6백30여명 정도가 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북쪽을 북해도대학, 서쪽은 나가사끼종합과학대학, 남쪽은 미야자키·가고시마대학까지 활약하고 있는 이공계교수, 그리고 민간회사에서 일본식이름으로 부르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재일과협 앞으로의 하나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재일동포들은 모국과 횡적인 유대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민단」의 과제이기도 하다. 1984년부터 시작된 학술행사로서 매 3년마다 전세계에 거주하는 과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모국에서

개최되는 과총주최의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통해서 세계의 우리동포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재일동포들은 지금까지 본국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면목없는 생각을 해왔으나 재일동포 각자가 모국과의 협력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평화롭고 살기 좋은 통일국가가 형성되도록 기대하고 있으므로 모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망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재일동포 자신도 이번에는 자기의 주체성과 생존권을 확립할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일동포의 시각을 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과제, 역사적 배경을 장황하게 말했던 것은 재일동포의 실태는 2세 이하가 90%에 달하며, 대부분이 일본에 절반은 동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의 과거의 역사와 오늘날 존재의 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정 당당히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백을 가지고 지적 수준을 높이며 교양있는 인간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세월 전쟁전후를 극

복하고 살아온 1세대의 고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되며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균형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대의를 생각하는 길이다. 세상은 양보다 질적인 것, 더욱 더 지금은 지적인 문화, 여유 즉 풍요로운 마음,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의 재일동포는 국적은 있어도 국경이 없는 미래가 목전에 다가오는 「역사속에서 태어난 아이」로서 존재한다.

재일동포는 자기의 연마와 단련에 의해 사도로서의 책임이 증대하며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해서 불행은 두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책무를 지는 자들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진실한 평등과 한·일 양국민의 우호와 절조(節操)를 가진 교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세계에 펼

쳐가는 사자(使者)가 되는 좋은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도자들도 재일동포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다. 모국에 대해서 2세이하는 거의 모두가 처음에는 언어풍습의 차이와 문화의 이질감으로 조국이지만 타국과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시대의 흐름이 변해 가고있기 때문에 2세이하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서의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이념과 사상, 즉 재일동포의 철학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즘이다.

**재일과학임원명단**

▲회장 : 金鉉佑(동북문화학원교수) ▲부회장 : 洪政國(일본IBM(주)) 高基秀(高電社사장) 姜文圭(近畿大學교수) 秦景周

(日本酸素(주)) 夫龍淳(후지제록스) ▲총무위원장 : 洪政國 ▲학술위원장 : 夫龍淳 ▲산업기술위원장 : 高基秀 ▲편집위원장 : 秦景周 ▲감사 : 李相洙(전부회장·顧問·동양유리기계<주>고문) 金海坤(전부회장·(재)아시아기술협력회 전무이사) ▲관서지부장 : 姜文圭 ▲명예회장 : 朴權熙(전회장·上野의원원장) ▲상임고문 : 金在河(전회장, 서경병원원장) 張甲淳(直前회장·東海大學교수) ▲고문 : 金兌貞(전부회장·東京醫科大學명예교수) ▲명예고문 : 孔魯明(주일본대한민국대사) 丁海龍(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단장) 李熙健(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 회장) ▲韓昌佑(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金海坤 <재일과학감사·아세아기술협력회 전무이사>

**◇외국인 출원 명의변경**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출원한 발명을 내국민명으로 우리나라에 출원할 수 있는지?

산업재산권은 일종의 재산권임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었을 때나 출원중이거나 출원전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자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국민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그 발명을 내국민 명의로 정당하게 출원할 수 있다. 이때 내국인 출원자가 우리나라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양도받았다면 외국인이 자국에 최초로 출원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우선권주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 출원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양도받아 출원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에 출원

하기 전에 외국에 출원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면 이는 출원전 공지에 해당되어 거절사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으로부터 자기나라에 출원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출원할 권리를 양도받을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양도받는 것이 권리를 안전하게 얻기 위해 필요하다.

**◇상표 구성 표장의 의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도형·기호란 무엇을 의미하나?

상표법상의 상표라함은 자기의 상품

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구성이 기호·문자 또는 도형만으로도 가능하고, 이들을 결합한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문자」란 사람의 말과 음(언어를 표시하는 시각적인 부호)의 글자이며, 「도형」이란 점 또는 선으로 표현하는 그림의 모양을 말하며, 기호란 선에 의한 기하학적인 것을 말한다.

하지만 상표가 문자·도형·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그 상품이 보통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것 △그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 △현저한 지명,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것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것 △간단하고 흔히 있는 것을 표시한 것.